

### 저의 통일속망을 틀어 주시려고 (6)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한복에 안아주고 민족의 숙원을 위한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 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이 공화국인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끝난 때로부터 어느덧 3년을 가까이하던 1956년 7월 초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남조선의 민족자주연맹, 《한국독립당》, 사회당, 민족공화당, 민주국민당, 신생활, 건국청년회를 비롯한 10여개 정당, 단체 등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과 남조선의 전 《국회》의원, 장관들을 비롯하여 정계, 군부,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녀성계에서 활약하던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 참가한 재북인사들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자기의 소망을 헤아려주시고 성대한 결성식을 가지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를 감사의 정에 넘쳐있었다.

어찌 그럴지 않았겠는가.

사실 이들은 전쟁의 첫 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었을 때 패주하는 리승만도당을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정치인 및 국회의원의회의》를 결성하

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리승만도당을 규탄하는 성명서, 담화,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전쟁승리를 위해 노력한 애국적인사들, 임복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들, 리승만도당에게 체포투옥되었던 전기 《국회》의 소장파의원들이었다.

이들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북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러서서 사울에 있는 남조선의 애국적정세인사들이 비록 우리의 정치는 다르지만 그들의 민족적정신과 애국적지조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반공일선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을 나선다면 과거를 불문하고 손잡고 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언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소망대로 평양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다 세워주시었다.

이렇듯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온 겨레를 한복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에 의하여 김구식, 조소앙, 조완구, 최동운, 엄학섭, 안재홍, 오하영, 송호성, 김백배선생 등을 비롯한 수십명의 애국적인사들이 가벌처절한 전화의 나날 불비 쏟아지는 포탄을 헤치며 공화국의 품에 안

##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길수 있었다.

신의를 귀중히 여기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인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믿고 이끌어주어 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전화를 그 어려운 날날에도 그들이 고대 숙식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푸신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불치의 병에 걸린 상태에서 공화국의 품에 안긴 김구식 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에 이런 시구절을 남겼수 있었다.

우호라!  
위대하다 현명하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  
이내 인생을 구원해주셨소  
이 한몸 죽은들 천만년 잊을  
손자  
자애깊으신 김일성장군님!

이렇듯 민족의 영명하신 김일성주석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들인 재북인사들이 그 주체45(1956)년 5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았을 때 정 남조선 각계 인사들로 조국통일실현에 이바지하는 단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수 있었다.

그 제의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

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라고, 우리는 여러분의 의향이 좋은 생각이라고 분다고, 여러분이 주동이 되어 다른 재북인사들과 광범히 토론하여 단체결성을 추진시키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리고 그들이 상설기관을 새로 내올데 대하여 합의하고 48명 공동발기인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통일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상설기관을 내올데 대한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셨으며 세 모란봉극장에서 성대한 결성식을 가질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던것이다.

이날 결성식에 참가하여 자기들도 조국통일의 대에 합류된 민족의 한 생원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한 재북인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모두는 한어머니품에 안긴 자식들이다. 우리가 안긴 품은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진 사람들과가도 다 안아주고 길을 헛갈려 헤매던 사람들보다 더 따듯이 품어주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다라고 하면서 통일위업에 한몸 바칠 결의를 다지였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 그것은 진정한 재북인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민족적정신과 통일의를 분출시켜 애국애족의 길에서 앞을 닦아내어 주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고결한 의리의 결정체였다.

재북인사들의 자치적인 통일 애국조직으로서의 통협의 결성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회원들에 대한 대우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의하여 최고위원 3명과 서기국장 등 공화국정부의 상과 똑같은 대우를, 상무위원들은 부상과 같은 대우를, 회원전원은 성 국장급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박렬, 백상규 등 몇몇 인사들은 비록 직제상 상무위원은 아니

었지만 상무위원들과 같은 부상 대우를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이뿐이 아니었다.

통협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통한 만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들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민족의 명산 금강산과 풍치좋은 휴양소에서 휴식의 한때도 보내도록 은정 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으며 세 정 집정국과 민족을 위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고결한 덕망에 의해 재북인사들도 모두가 보람찬 통일애국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하기에 언제나 애국열사를 용이한 한 해외포교인사들 김구식, 조소앙, 안재홍, 백남운, 리극로, 최동운, 류동열, 류영준을 비롯한 재북인사들이 이곳에 안치되어있는것을 보고 《김일성주석님의 품속에서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따로 없고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따로 없으며 북과 남, 해외동포가 따로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종교계의 한 인사도 애국열사를 참관하고나서 《각이한 사상과 정경, 신앙을 가지고 각이한 인생행로를 걷다가 태양의 품에 안겨 진정한 애국의 길에 걸음을 내딛고 있는 각이한 계급, 계층의 대인명사친갈도 하다.》고 하였다.

은 겨레를 한복에 안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이 있었수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최명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식이 성대히 진행된 모란봉극장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전후 더욱 높아진 평화통일의 목소리

전후시기에 와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54년 10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협상과 접촉을 실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것을 제안한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북남협상의 길에서 조국통일의 서판을 내다본 남조선인민들은 이 호소문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북남협상을 지지하는 선전물들을 남조선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 지어는 《정부》기관들에도 들여보내는 대단한 활동을 벌였다.

남조선에서 북남협상개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갔다. 남조선의 언론계에서도 통일을 지지하는 큰조가 대두하게 되었다. 《한국일보》는 사실에서 《남북이 서로 접근하고 협상하여야 한다는 건 국민의 갈망에 의하여 우리는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노력을 이기를 제의한

다. 우리는 정전 및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국가통일을 갈망하는 어떠한 사람도 환영하고 그들과 협의할것이다.》라고 썼다.

이러한 정세발전은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와 같은 력사적회합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겨레의 지향기 날로 높아가고있음을 보여 주는것이다.

그러나 외세와 리승만독재 《정권》은 남조선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은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를 악랄하게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북남협상을 기초한 통일방안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른바 《국시》를 위반한자라고 다스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미친듯이 인민탄압을 감행하여나섰다. 1955년 한해동안에만도 체포구금된 애국적인민은 11만 1700여명에 달하였다.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이러한 반 민족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더 크게 자아내었다. 이 시기 남조선에서는 진보당이 출현하여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러나갔다. 자기의 정당한 활동으로 하여 진보당의 위신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지게 되었고 이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민심의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1956년 5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명백히 표시되었다. 평화통일강령을 내세운 이 당의 립후보가 리승만이 갖은 남조로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표의 찬성투표를 받은것이다.

미국의 출판물까지도 선거결과를 평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의 대중적반대는 권력의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녀원이 장성되어가고있다는것을 반영하였다.》(《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너》) 1956년 6월 26일)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의 식민지파쇼정치와 민족분열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해를 부린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한편 유석열대들은 《항구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운운하면서 일본에 《한일정책협약》을 보내고 그 무슨 《친선》전담과 《대동

맹》취임식참가를 구걸하는 등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과 입을 맞추는것도 서슴치 않고있다.

그야말로 사대매국, 외세추종에 환장한 사대매국노들의 추악 부수나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날로 악랄해지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감, 대결의 골이 깊어지고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먹구름이 더욱 짙어가고있는 가운데 발표된 공동 호소문은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거부하고 조국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녀원을 반영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는 남조선에서 유석열 《정권》의 사대매국적정체가 갈수록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유석열이 집권하기 전부터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며 《한미정착회담》을 미국에 보냈다. 《한미정착회담준비를 위해 서 울에 온 미국측 실무자들과 만나 《력대 대통령들중 취임후 가장 빠른 한미정착회담》이니, 《현시점에서 한미에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결이있는 론》이니 하며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비굴한 추태를 부린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한편 유석열대들은 《항구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운운하면서 일본에 《한일정책협약》을 보내고 그 무슨 《친선》전담과 《대동

맹》취임식참가를 구걸하는 등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과 입을 맞추는것도 서슴치 않고있다.

그야말로 사대매국, 외세추종에 환장한 사대매국노들의 추악 부수나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날로 악랄해지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감, 대결의 골이 깊어지고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먹구름이 더욱 짙어가고있는 가운데 발표된 공동 호소문은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거부하고 조국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녀원을 반영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는 남조선에서 유석열 《정권》의 사대매국적정체가 갈수록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유석열이 집권하기 전부터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며 《한미정착회담》을 미국에 보냈다. 《한미정착회담준비를 위해 서 울에 온 미국측 실무자들과 만나 《력대 대통령들중 취임후 가장 빠른 한미정착회담》이니, 《현시점에서 한미에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결이있는 론》이니 하며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비굴한 추태를 부린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한편 유석열대들은 《항구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운운하면서 일본에 《한일정책협약》을 보내고 그 무슨 《친선》전담과 《대동

척직선생이 란 차는 어느덧 평양시교외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르렀다. 아늑한 산기슭에 정성담아 쌓아올린 봉분앞에 씩씩한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묘》라는 비문에서 선생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애국지사!  
나라없던 그 시절에 천도교인이었고 민족주의자였던 부친, 반일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삼해방정투에도 관여하였고 해방후에는 리승만독재 하에서 벌이별 고조와 모멸속에서 방황하던 아버지였다.

그러던 부친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애국지사라는 고귀한 명예를 받아안았으니 선생은 복받쳐오르는 고마움과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오르며 무릎을 꿇고 속죄하였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안긴 품이 있어, 그분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구세주야!》라고 흥분에 겨워 웨치던 부친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지 못했던 자신을 꾸짖어 주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인 척직선생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었다.

지나온 인생길을 후회속에서 돌이켜볼수록 그토록 자애롭고 의리깊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감사할수록 그심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시뚝 용기가 나지 않았고. 너무도 외로운 자신이었던것이다.

주체67(1978)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척직선생의 소망을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위하여는자식으로 높이 치하하시며 친같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그를 품소 만나 주시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계신데 어찌 이르렀을때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현관 앞마당에까지 나오시여 기다리고계시었다.

척직선생은 허둥지둥 차

를 내세워가며 하며 언제나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의 리익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첫째로 삼는다고, 자기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를 해서서 무엇하며 자기 민족이 없는 《지상천국》은 해서 무엇하겠는가고, 나는 일체를 반대하여 투쟁할 때에도 언제나 민족문제를 먼저 생각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뒤전에 미루어야 한다는 애민애족의 사상이 마디마디 뉘척초르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만나안으며 척직선생은 여생을 조국통일사업에 헌신하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재미동포들과 미국사람들에게 공화국의 정당한 조국통일정책과 민족 자주적립장을 대하여 널리 알리고 납득시키겠다고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민족의 단결문제를 내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

### 통일을 불러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애국의 길에 (4)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애국의 길에 (4)

척직선생에게 있어서 너무 나도 크나큰 믿음이었다. 히 결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민족의 단결문제를 내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

척직선생에게 있어서 너무 나도 크나큰 믿음이었다. 히 결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민족의 단결문제를 내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

척직선생에게 있어서 너무 나도 크나큰 믿음이었다. 히 결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민족의 단결문제를 내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

### 민족자주의 기치

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쫓겨간 《정권》은 처음이다.

현실은 은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는 사대매국세력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존엄도, 자주통일과 민족번영도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교훈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의 지배자로 군림

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은 날로 로골화되고있다. 미국이 갈수록 흔들리는 패권적지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측확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남조선들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제 배를 채우기 위한 식민지로 언제나 나타나고 있다. 《정권》이 없었다. 하지만 유석열 《정권》처럼 취임하기 전부터 뼈속까지 체질화된 사대매국적본

척직선생이 란 차는 어느덧 평양시교외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르렀다. 아늑한 산기슭에 정성담아 쌓아올린 봉분앞에 씩씩한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묘》라는 비문에서 선생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척직선생에게 있어서 너무 나도 크나큰 믿음이었다. 히 결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시어

5월 24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3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은 더욱 높아갔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전면적투쟁위에서 날로 앙양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9(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새로운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5개방침은 은 민족의 철박한 녀원에 맞게 하루 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전면적투쟁 위업의 실현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 등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개방침은 겨레의 통일 녀원과 정세발전의 추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통일방안으로서 조국통일의 주제인 전체 조선민족의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하기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는 조국통일5개방침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조국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섰다. 조국통일5개방침은 그 현실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1990년 5월 31일에 진행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부련합회의에서는 조국통일5개방침이 온 민족의 철박한 녀원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

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확인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의 결정적추진을 열어나가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북과 남, 해외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되게 되었다.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며 1990년대의 첫해에 성공적으로 열린 범민족대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 크게 새겨진 력사적회합이었다.

조국통일5개방침이 제시된 그해 11월에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3자련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기구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결성하기 위한 회담이 열린것도 조국통일운동은 전면적투쟁위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그분이 아니다. 1990년 10월 북과 남을 오가며 겨레의 통일열망을 고조시킨 북남통일추진기구는, 같은 시기에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12월에 있는 《90년통일통일음악회》 등은 북과 남, 해외의 은 겨레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치게 한 의의깊은 사변들이었다.

정당 조국통일을 민족지주의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정세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제안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리리안

척직선생이 란 차는 어느덧 평양시교외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르렀다. 아늑한 산기슭에 정성담아 쌓아올린 봉분앞에 씩씩한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묘》라는 비문에서 선생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